

조달청, 건설경기 회복지원 위해 현장소통

- 대한건설협회를 방문, 적정공사비 확보, 건설경기 회복지원, 건설안전 확보 등 논의

조달청은 22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. <사진>

이번 간담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, 현장 요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.

건설협회는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100억원 이하 적격심사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,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(100억원~300억원)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이와 함께, 정부의 중요 국책사업 시행을 지연시키는 기술형입찰* 유찰의 원인과 대책도 논의하였다.

* 건설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, 기존 설계를 수정·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방식(일괄입찰, 기술제안입찰, 대안입찰)

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대응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도 청취하였다.

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“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”면서 “지역경제의 주요 동력인 건설업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성기석	(042-724-7334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만	(042-724-7085)